

10 오피니언

사설

첨단분야 학과, 내년을 준비할 때

지난달 27일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가 나왔다. 우리학교는 지난 2월 3일 지원한 5개 첨단분야 정원배정에서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반도체, 지능형 로봇과 같은 첨단분야는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이자 학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대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심혈을 기울여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학교를 포함해 우리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에서 한 분야도 선정되지 못한 것은 당황스럽다. 하지만 그 세부 결과를 따져보면, 우리학교의 탈락이 심한 충격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번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수도권은 신청대비 14.2%가 순증됐으며 비수도권은 신청대비 77.4%가 순증됐다. 수도권 내에서도 국립대의 순증 비율은 30%에 달했다.

물론 우리보다 낮은 대학이라 인식되는 학교에 밀리는 예상 밖의 결과는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대학의 구성원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함몰되어 서로를 탓하고 자책만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될 노릇이다.

정부의 첨단분야 신증설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대학이 취해야 할 움직임은 우리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대학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은 분명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여지가 존재한다.

나아가 대학은 구성원에게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적극 설명해야 한다. 이후에는 구성원 전체가 분석 결과를 둘러싼 대학의 향후 운영 방안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대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 구성원들과의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 사업 결과에 대한 학생사회의 관심과 불만은 상당하다. 교내 커뮤니티에는 우리학교가 해당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과 비판하는 글이 자주 게재된다. 학생들이 이번 결과에 큰 관심과 불만을 보이는 것은 작년 반도체 융합전공 논란과 관련이 있다.

작년 반도체 융합전공 논란은 대학과 학생 사이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반도체와 관

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대학을 비판하기 바쁘다. 아직까지도 대학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내 커뮤니티에는 “반도체 융합전공을 서울캠퍼스에 개설하려고 하니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우리학교가 결원을 활용해 반도체학과를 국제캠퍼스에 신설한다는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학과 학생사회 간의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소통은 이뤄질지 없다. 대학은 이번 결과를 기점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건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그 전에 학생사회와의 불신의 끈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소통 속에서 설계된 정책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다. 이를 계기로 내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이 보다 건설적인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세시봉

헤어질 결심

장비슬 기자

eva6155@khu.ac.kr



과거 영화관은 꼭 빠지지 않는 단골 데이트 장소였다. 당시 영화관은 데이트하기에 적합하고, 여가 활동에 좋은 ‘저렴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문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안겨 주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9 한국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년 대한민국 인구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4.37회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영화 한 편 보기 부담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주말 저녁 영화 한 편을 관람하기 위해선 15,000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조조 영화 역시 만 원이 넘는다. 이른바 ‘용아맥’이라 불리며 영화 팬들에게 사랑받는 CGV 용산 아이맥스의 티켓값은 이미 이만 원 선을 넘어버렸다.

따라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함께 했던 영화관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기존의 영화관에서 잘 상영하지 않는 장르부터 먼 나라의 영화까지 모두 시청할 수 있는 OTT 산업의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고가의 영화관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 넷플릭스의 베이직 요금제는 9,500원으로, 이곳에선 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수천 편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영화값의 인상과 함께 영화를 찾는 사람들의 시선 역시 바뀌었다. 이전에는 가벼운 여가 생활로 영화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영화 한 편에 높은 가격에 걸맞은 수준을 요구한다. ‘15,000원 내고 보기 안 아까운 영화’라는 관객의 엄격한 기준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영화 산업에 더 큰 압박을 안겨줬다. 5천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29편의 천만 영화를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백만 영화도 나오기 힘들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모 영화관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가격 인하와 관련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뉴스에선 대형 영화관들의 흑자 전환 소식이 쏟아져 나온다. 이제는 영화관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 가격을 내리고 영화 산업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영화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대학스포츠의 위기

과도기의 늪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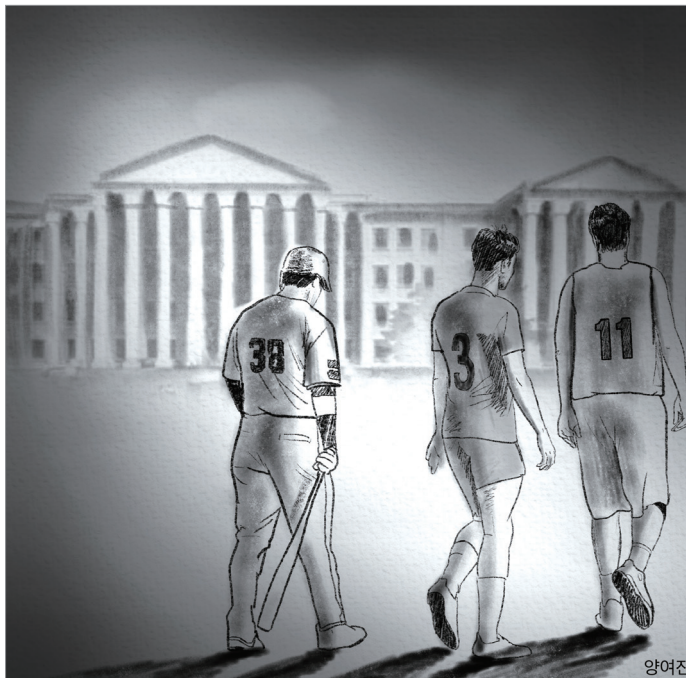
1990년대 대학스포츠는 열띤 응원전과 함께 인기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는 옛이야기일 뿐이다. 현재 대학스포츠는 위기에 직면했다. 프로 스포츠로 옮겨간 대중들의 관심, 프로 진출 방식의 변화 등으로 대학스포츠는 침체기에 들어섰다.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로 상징되는 대학의 재정난도 예전과 같은 수의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학들은 비인기종목 위주로 스포츠팀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직격탄은 고스란히 우리학교 체육부에도 전해졌다. 체육부가 자연스레 ‘미운 오리’ 신세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39곳 대학 중 72곳의 대학에서 95개 종목의 체육

부가 해체됐다. 체육부 일부는 인원 부족으로 인한 경기 출전 불가로 기량을 펼칠 기회를 잃었다. 또 각 대학 체육부의 해체로 종목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위기는 스포츠팀에 소속된 개별 학생들의 진로 문제를 넘어 실업과 프로 스포츠 전체를 흔들고 있다. 특히 대학은 인기 종목보다 비인기 종목을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인기 종목 실업팀의 수급 문제는 더 큰 타격을 받는 실정이다.

위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단체와 정부가 모여야 한다. 과도기에 따른 변화들이 의도치 않게 학생 선수들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육부의 말뿐인 운영으로 그쳐서도 안 된다. 즉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 기반 구축인 내실화부터 논해야 할 시점이다. ‘학교의 전통과 이름’으로 새로운 필드에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는 과도기의 늪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만평 체육부 해체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